

내년 도내 고교 수업료 동결... 11년째

전주·군산·익산 등 평준화지역 1분기 31만8000원

내년에도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수업료가 동결된다. 이는 2008년 이후 11년째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19학년도 공·사립 고교 수업료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고교 수업료는 1급지인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 2급지인 읍·면지역, 3급지인 도서지역으로 나뉘는데,

전주·군산·익산 등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수업료는 1분기 31만8,000원(연 127만2,000원)이다.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는 분기별 25만500원(연 100만2,000원)이다.

2급지인 읍지역은 분기에 24만6,000원(연 98만4,000원), 면지역은 분기별 22만500원(연 88만2,000원)이며, 3급지인 도서지역은 분기에 14만9,700원(연 59만8,800원)이다. /장은성 기자

〈2019학년도 고교 수업료 정액표〉

학교별	적용지구	구분	수업료		사립	
			비특성화계	특성화계	비특성화계	특성화계
고등학교	1급지 (평준화지역)	연액	1,272,000	1,231,200	1,272,000	1,231,200
		분기액	318,000	307,800	318,000	307,800
		월액	106,000	102,600	106,000	102,600
	2급지 (비평준화지역)	연액	1,002,000	600,000	1,002,000	600,000
		분기액	250,500	150,000	250,500	150,000
		월액	83,500	50,000	83,500	50,000
방송통신고등학교	1급지	연액	984,000	560,400	984,000	560,400
		분기액	246,000	140,100	246,000	140,100
		월액	82,000	46,700	82,000	46,700
	2급지	연액	882,000	494,400	882,000	494,400
		분기액	220,500	123,600	220,500	123,600
		월액	73,500	41,200	73,500	41,200
3급지 (도서지역)	연액	598,800	420,000	598,800	420,000	
	분기액	149,700	105,000	149,700	105,000	
	월액	49,900	35,000	49,900	35,000	
방송통신고등학교	1급지	연액	82,800			
		분기액	27,600			



전북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이하 LINC+) 학생들이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최근 LINC+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나의 아이디어에 날개를 달자’

LINC+ 아이디어 대회 통해 학생 창의적 작품 선정
17팀 우수작품 시상... 스마트 그늘막 아이디어 ‘대상’

전북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이하 LINC+)사업단·단장 고영호 교수가 학생들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최근 LINC+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학생들의 창의적 공학설계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작품 수준 향상과 최종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매 학기 진행하고 있다. 인문·사회, 자연·농생명, 공학, 융합 총 4개 분야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된 이번 대회는 1·2차 서류 평가 및 경진대회를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4팀, 우수상 4팀, 장려상 8팀 총 17팀의 우수작품에 대해 시상했다.

영예의 대상은 그늘 아래 팀(김태한·유은상·김진희·이범기,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3학년)이 수상했다.

이 팀은 센서를 통해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그늘막’을 아이디어로 선보였다.

이 외에도 경진대회에서는 유니콘팀의 ‘피트니스 산업과 VR을 결합해 세계일주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및 디바이스’, 탕탕탕팀의 ‘현대 시민에 걸맞은 스마트친환경공원’, 범인 드론팀의 ‘방범/순찰용 드론’, 장보고팀의 ‘계산 및 도난방지용 카트 탈부착 디바이스’ 등이 아이디어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지역 기업과 함께 ‘pre-JOB 이색 채용 제안서 경진대회’ 실시

전주대(총장 이호인)는 2018 pre-JOB 이색 채용 제안서 경진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구직자가 기업에 먼저 채용을 제안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1차 면접을 거쳐 선발된 15팀, 총 52명의 학생들이 경연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기업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와 본인만의 차별화된 직무역량을 시각적으로 발표했다. 이날 대상(전주대학교 총장상, 상금 100만원) 1팀, 최우수상(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상금 80만원) 2팀, 우수상(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장상, 상금 50만원) 3팀, 장려상(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장상, 상금 30만원) 4팀이 선정됐다. 특히, 이날 ㈜한국폴드, 페이퍼코리아, 하림, IS엠트론, 대자인병원, 모스터일렉, 이랜드 등 7개 기업의 현직자가 참여해 멘토링을 진행하고 각 팀의 채용 제안서를 심사하여 경진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전주대가 2018 pre-JOB 이색 채용 제안서 경진대회를 진행했다.

실질할 수 있었다”라며 “다른 참가자들이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동기부여가 되었고 같이 하면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

게 되어 정말 의미 있는 경진대회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도 지역 청년들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제3세계 문제 해결 글로벌디자인 워크숍’ 개최

전주대 산업디자인학과(학과장 신익수 교수)는 지난 22일부터 2박 3일 동안 경기도 화성 라비올리조트에서 ‘2018 KCID 글로벌디자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재학생 및 산업디자인 관련 교수, 기업체 임직원 등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전주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을 맺은 (사)웨어라이트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워크숍은 총 11개의 팀으로 나뉘어 (사)웨어라이트에서 제시한 과제를 풀어가는 ‘단기 몰입형 디자인씽킹 프로젝트’로 진행됐다.

(사)웨어라이트 박은현 이사장은 “학생들의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감탄했다”라며, “향후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약속하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개발하여 전주대학교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는 지난 15일 (사)웨어라이트와 지식·정보·시설·인력 교류 등에 관한 산학협력 협약을 맺었으며, (사)웨어라이트로부터 1,000만원의 발전기금도 기탁 받았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외국인 유학생 취업역량 프로그램 ‘호응’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이 국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해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24일 전북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도내 5개 대학 80여명의 유학생들이 참여해 국내 취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내 기업 취업 성공을 위한 사전 준비 필수사항과 인재상에 맞춘 실전 이력서 작성법에 대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됐다.

에과도르 출신 다비라니콜라스(전북대 경영학부 4년) 학생은 “이번 프로

그램을 통해서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력서 작성과 나만의 키워드로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었으며, 면접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실제 면접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 간접 경험하게 되어 취업준비에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명숙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추진 위원장은 “우리 지역에서 유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 전라북도 및 국내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진됨으로써 국내취업을 유도하여 외국인유학생 유치 사업에도 선순환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나의 미래 찾는 ‘유라시아 토크콘서트’ 열린다

전북대 공공외교사범사업단
내일 글로벌인재관서 개최

전북대학교 공공외교사범대학 사업단(책임자 문경연 국제인문사회학부 교수)이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KF) 한·중·양자 사무국과 함께 내일 글로벌인재관에서 ‘유라시아 토크콘서트: 중앙아시아에서 나의 미래 찾기’를 개최한다.

이번 특강 시리즈는 정부의 신북방 정책 추진으로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청년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자 마련된 것.

이를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서울(KF 세미나실), 경기도(이주대),

전북지역(전북대), 경상도(부산대, 계명대) 등 권역별로 총 5회의 토크콘서트를 기획했고, 첫 일정을 전북대에서 시작하게 된다.

유라시아 토크콘서트는 ‘실�크로드와 모피로드, 그리고 한반도(윤성학 고려대 교수), ‘유라시아와 한반도: 기회와 도전’(양용호, (사)유라시아 경제인협회 이사장) 등의 주제 발표를 통해 실무 전문가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 실제 청년들이 이 지역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를 통해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유라시아와 북방 지역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알 수 있는 설문조사 등을 시행해 내년 시행될 ‘2019 유라시아 아카데미’에 반영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